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Marital Relations of Aged people A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Divorce Intention

김길현,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Kil-Hyun Kim(kgh533@yahoo.co.kr), Kyu-Soo Ha(ksh@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여 유배우들이고 설문지는 총 550부를 배포하여 459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만족도에는 부부관계 요인의 애정생활, 여가공유, 친밀감 및 의사소통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갈등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혼의도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경제적 갈등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반면에 애정생활 및 친밀감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종교, 학력, 건강상태 및 월평균수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몇 가지 제언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부부관계 | 결혼만족도 | 이혼의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whether the marital relations of aged people affect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divorce inten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men and women with their spouse in 60th or more than 60th. Total surveys distributed were 550 and 459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inally. The statistic method applied in this research was SPSS 19. The statistic method use in this study wa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t-test, one way ANOVA and Hiearchical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marital satisfaction has positive relations on affection expression, leisure sharing, sense of closeness and communications. However, economic conflict has negative relations on marital satisfaction. Second, divorce intention has positive relation with economic conflict. On the other hand divorce intention showed negative relations with affection expression, sharing leisure, sense of closeness and communication. Finall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pousal relationships and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factors and based on the above results several suggestions and limitations were presented.

■ keyword : | Marital Relation | Marital Satisfaction | Divorce Intention |

I. 서론

고령화와 더불어 평균 기대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21세기 현 시점, 과거보다 적은 수의 자식출산은 자녀가 모두 결혼한 이후 긴 시간을 두 부부만이 생활하게 되었다[1]. 특히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벗어나 노년기 부부만 거주하는 형태가 늘어남(1994년 26.8%, 2009년 35.6%)에 따라[2] 노년기의 결혼만족도와 황혼이혼의도에 대해 재 숙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노년기의 결혼만족도는 대부분의 결혼초기에 높고, 중년기 후반까지 낮다가 노년기에 다시 높아지는 U자형 곡선을 보고한다[3][4]. 또한 결혼지속연수가 경과할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하나 결혼생활 말기에는 다시 상승하여 결혼 초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5]고 하였다. 그러나 자녀관계에 몰두했던 에너지가 부부관계로 전환되어 노년기를 향한 부부관계의 재정립과 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황혼이혼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6].

최근 보고에 의하면 서울에 사는 부부 1만 5600쌍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에서 이혼한 부부 중 결혼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 전체의 27.3%를 차지했다 또한 50세 이상 이혼비중도 2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 홀로된 50세 이상 남편은 1990년 8.5%에서 2010년 32.7%로 4배, 아내는 같은 기간에 3.7%에서 22.8%로 6배가 증가했다. 이혼건수에 있어서도 50세 이상 남성의 이혼건수는 1990년 3천384건에서 2000년 1만5천517건, 2010년 1만8천791건으로 증가했고, 50세 이상의 여성도 2천81건, 4천 145건, 1만 956건으로 늘었다. 또한 성별로 보면 이혼상태인 가구주 중 여자가 72만1000명으로 54만 6000명인 남자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0.3%, 50대가 33.8%, 30대가 12.2%, 60대의 노년기의 황혼이혼도 10.5%로 뒤를 이었다[7].

황혼이혼은 결혼생활에서 오랫동안 표현되지 못한 결혼에 대한 실망감과 발생하는 제반문제 및 갈등들은 중년기의 결혼불만족이 고조되어 부부 간 거리감 및 소외형태로 표출된다[8][9]. 따라서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이혼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과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으며[10-16], 이혼의도[17-22]와 별거촉진[23]과 관련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 부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관계적인 요인을 설정하여 이혼의도와 관계성을 밝힌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60세 이후 노년기 남·여 유배우들의 부부관계 요인(애정표현, 여가공유, 경제적 갈등, 친밀감, 의사소통)을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하고, 첫째, 부부관계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이혼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가족복지와 노인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예측할 수 있고, 부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종교, 학력, 건강상태 및 월평균수입)에 따라 부부관계 요인,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과 결혼만족도

노년기의 정의는 생물학적으로는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과정에 있는 자[24]로 구분한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한 완전노령연금[25]을 수령하는 나이인 60세,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연소노인(60-64세), 중고령 노인(65-74), 고령노인(75이상)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으며[26], Levinson[27]의 발달단

계에 따른 주요과업에서 60-65세를 노년기의 전환기로 구분하였다.

노년기의 특성은 신체발달에 있어서 능력이 다소 감소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하고 여전히 활동적이다. 인지발달에 있어서 지적 능력과 기억력이 감퇴하지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또한 심리 사회적 발달은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과 수입의 감소와 많은 여가시간의 활용 및 다가오는 죽음에 대비하여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가족친지 또는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6]. 특히 노년기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증을 낮추고, 친밀감 및 정서적 지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보다 주관적 심리적 복지감을 가져온다[28]고 하였다.

결혼만족이란 장기간에 걸쳐 변화할 수 있는 태도이므로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시간적 차원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선호의 태도[29]로 정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로서 배우자에 대해 선호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30]에 따르면 부부의 결혼만족에 있어서 배우자에 만족한다는 여성은 64.9%, 남성은 73.4%로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과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부의 애정생활이다. 노년기 부부의 애정생활은 부부간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배우자에 대한 노력과 태도로서 성생활도 포함된다. 노년기 부부의 성관계나 애정이 강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약할수록 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고[31], 김윤정과 서선영[11]은 중·노년기 부부 187쌍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60대의 부부가 다른 연령대의 부부에 비해 사랑과 성생활 즐거움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생활 부담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사랑점수가 높고, 성생활만족감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남편의 경우만 낭만적 사랑이 자신의 성생활 즐거움과 성생활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영옥[32]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의 성적친밀감이 높게 나타나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학력, 소득수

준, 본인건강, 배우자의 건강이 좋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성적친밀감이 높았으며, 성적친밀감이 좋을수록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Chung, Kamo와 Yi[33]는 한국과 일본의 부부 간 상호작용 및 성생활과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부부는 상호작용이, 일본의 부부는 성생활을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조혜숙과 최수일[34]은 노년기 부부의 애정 표현이 좋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조혜숙[15]은 중·노년기의 남·여 배우자들의 부부관계에서 애정관계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둘째는 부부의 여가공유이다. 여가공유는 부부가 함께 여가생활에 참여하는 빈도나 정도를 말한다. 권오근과 허준수[13]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동여가활동빈도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밝혔다. 또한 노년기에 참여모임 수가 많은 노인이 참여모임 수가 적은 노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고[3][35], 노년기에 부부 각자가 여가활동을 하는 것보다 함께 할 경우가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16][36]. 조혜숙과 최수일[34]은 노년기 부부의 여가생활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조혜숙[15]은 중, 노년기 부부의 여가공유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유시순[31]은 부부가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 부부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취미나 관심을 갖는데 중요하다면서 부부 간의 여가-사회활동이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Hollman과 Jacquart[37]는 부부가 상호작용을 하며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서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셋째는 부부의 관계 속에 경제적인 갈등이다. 경제적 갈등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부부 간의 갈등의 정도를 포함한다. 최정자[38]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관계 변인 중 경제적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핀란드 기혼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 그리고 특별하게 불안정한 생활(an

unstable career line)은 우울(depression), 결혼의 적대감(marital hostility) 및 빈약한 결혼의 질(poor marital quality)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39]. 그리고 핀란드인 608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적 환경이 결혼적응에 관련된 연구에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경제적 긴장(economic strain)과 관련되어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했고, 심리적 스트레스는 결혼적응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40]고 밝히고 있다. Kwon 등[41]은 한국 경제적 위기(the economic crisis)에 따른 부부관계(marital relationship)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제적 압력(economic pressure)은 정서적 고통(emotion distress)과 결혼 갈등(marital conflict)을 경유하여 결혼만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넷째는 부부의 친밀감이다. 부부의 친밀감은 서로가 의지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정서적 지지의 정도를 포함한다. 최연우[14]는 30-50대까지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인지적, 성적 친밀감이 높고 살림살이로 인한 갈등이 적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은 높다고 밝혔다. 구본진[42]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극복력, 희망, 부부친밀감 및 가족지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부부친밀감과 삶의 질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섯째 부부간 의사소통이다. 부부의 의사소통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솔직한 대화를 하는 정도를 포함한다. 윤영과 신호식[43]은 노년기 부부관계의 상호요인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할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활하지 않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조혜숙과 최수일[34]은 노년기 배우자들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유시순[31]은 부부관련 요인 중에서 의사소통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노년기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명자[44]는 은퇴한 노인의 부부매개 모형을 통해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영옥[32]의 연구에서도 부부의사소통은 연

령, 소득수준, 본인건강 배우자건강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과 이혼의도

노년기 이혼은 연령별로 구분하여 ‘노년이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45]. 결혼생활 20년 이상 동거한 경우나 황혼에 하는 이혼을 황혼이혼이라 칭하기도[46]하지만, 아직은 법, 제도에서 명확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이혼의도는 이혼을 생각하거나 행동으로 표출하는 정도 및 태도를 포함한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7]은 이혼을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늘고, 여성노인이 이혼에 대한 더 관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성[19]은 남편과 아내의 이혼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 수준이었으나, 남편과 아내의 이혼시도 경험, 그리고 아내의 이혼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결혼관계의 의존도였다. 이 결과로 한국의 부부들에게 있어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게 하나, 이혼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혼의 시도 및 계획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한기과 손영화[18]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만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결혼만족이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즉, 성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아지고, 결혼만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혼의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Kincaid과 Caldwell[23]은 56명의 응답자를 통해 별거를 촉진하는 요인들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울수록, 정서적 학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랑이 결여될수록 별거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혔다. 김경신과 이선미[21]는 60세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갈등 실태 및 그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갈등은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부부관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갈등이 보통보다 높았는데, 특히 성격, 가치관, 생활습관, 대화, 친인척 문제, 사회활동 문제 등의 하위영역에서 남편보다 부인이 갈등을 더 인지하였다. 또한 남편

은 배우자와의 친밀감, IADL, 의사소통 효율성, 내적 통제성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갈등의 정도가 높았으며, 부인은 의사소통 효율성, IADL, 내적통제성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부의 이혼사유 중 경제문제로 인한 비중은 2000년에 10.7%에서 2009년에는 14.4%로 3.7%포인트 상승했으며, 이혼사유 중에서 성격차이(남 46.9%, 여 44.4%), 경제적 갈등(남 12.5%, 여 11.2%), 가족 간의 불화(남 7.6%, 여 10.1%), 배우자의 부정(남 5.8%, 여 6.3%), 정신적, 육체적 학대(남 5.8%, 여 5.3%) 등의 순이며, 노인들(60세 이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42.6%), 건강문제(37.2%)라고 밝혔다[47]. 또한 자녀를 떠나보내고 난 후의 빈둥우리(empty nest)에서 부부간의 친밀도가 강화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22]. 차성희[20]는 노년기 부부갈등이 이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해 부부갈등 영역에서 의사소통 및 가정생활 영역에서 이혼생각과 이혼의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혼생각과 이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갈등 영역과 성·애정표현에 있어서는 이혼생각과 이혼행동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 노년기의 결혼만족과 관련된 연구이고, 부부관계가 황혼 이혼의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의 하위요인으로 애정표현, 여가공유, 경제적 갈등, 친밀감 및 의사소통 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과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 간에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 요인과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의 차이와 관계

성별에 따라 박은아와 이정우[48]의 연구에서도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이 의사소통 효율성 정도와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균과 허준수[13]는

성별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혔다. 노년기 여성보다는 남성 유배우들이 애정표현, 친밀소통에 있어서 평균값이 더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후에 남성일수록 부부간에 친밀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애정표현을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34]. 또한 조혜숙[15]은 연구대상의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부부여가와 애정관계 및 결혼만족도에서도 높게 인식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종교의 유무에 따라 권오균과 허준수[13]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유시순[31]은 노년기 결혼만족도에 종교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응답자의 89%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었다.

학력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혜숙과 최수일[34]은 학력이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고, 의사소통이 높으며, 여가공유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관계와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높고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밝혔다[15]. 김경미[49]는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는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혼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오균과 허준수[13]는 학력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면서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혔다. 이명신[17]은 고학력집단 집단에서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건강상태에 따라 조혜숙[15]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애정관계, 부부여가 및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권오균과 허준수[13]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43].

월평균수입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혜숙[15]은 월수입이 높을수록 부부의 애정관계, 부부의 공동여가생활 및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김경미[49]는 수입이 높을수록 이혼의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권오균과 허준수[13]는 월평균수입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III.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60세 이상의 노년기 유배우자들이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고, 성별에서 여성이 58.0%를 차지했으며, 경제상태는 어렵다가 45.5%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는 65-69세가 37.5%로 가장 높았다. 학력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14.2%를 차지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58.0%였고, 자녀와 동거여부는 비동거가 66.4%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그저 그렇다가 43.4%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수입은 100-300만원 미만인 36.2%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나, 500만원 이상도 11.0%로 나타났으며, 집소유에 있어서 전세도 23.5%를 차지했다.

표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59)

범주	하위범주	빈도(%)
성별	남성	193(42.0)
	여성	266(58.0)
종교	있다	267(58.2)
	없다	192(41.8)
경제상태	어렵다	209(45.5)
	그저 그렇다	147(32.0)
	어렵지 않다	103(22.5)
연령대	60~64세	116(25.3)
	65~69세	172(37.5)
	70~74세	122(26.5)
	75세 이상	49(10.7)
학력수준	초졸 이하	118(25.6)
	중졸	123(28.8)
	고졸	144(31.4)
	대졸 이상	65(14.2)
직업	있다	193(42.0)
	없다	266(58.0)
자녀동거 여부	동거	154(33.6)
	비동거	205(66.4)
건강상태	나쁘다	110(24.0)
	그저 그렇다	199(43.4)
	좋다	150(32.6)
월평균 수입	100미만	143(31.2)
	100~300미만	168(36.6)
	300~500미만	97(21.1)
	500이상	51(11.1)
집소유 상태	내소유집	162(35.3)
	배우자소유집	132(28.8)
	자녀소유집	30(6.5)
	전세	108(23.5)
	월세	27(5.9)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년기 남녀 유배우를 대상으로 설문문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9월 5일부터 시작하여 2011년 9월 30일까지 종료하였다. 설문 장소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용산구, 은평구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및 노인들이 많이 찾는 종로구의 유희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문을 하였고, 기타 관공서 이용자들과 행사장을 참여한 어르신들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50부 설문지를 받았으나, 그 중 설문문에 응하지 않았거나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91부를 제외한 나머지 459부(유효응답률 83.5%)를 최종적인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독립변수인 부부관계에서는 애정생활, 여가공유, 경제적 갈등, 친밀감 및 의사소통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는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로 구성하였다. 개념변수인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에서 요인수의 결정방식은 고유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들을 선택하였고,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의 경우 0.5이상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유효한 변수로 판단하였으며, 신뢰성분석에서는 신뢰계수가 0.6이상일 경우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항목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범주화하였다.

먼저, 애정생활은 이경희[50], 이행욱[51]의 연구를 토대로 총 6개의 문항으로서 솔직하게 애정을 표현하고 노력하며,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하고, 성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포함한다. 고유치 4.534, 요인부하량 0.584~0.812로 측정변수의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부부관계 요인 중 애정생활에 관한 설명력이 총 변량의 15.635%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s α 는 0.895로 요인의 신뢰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여가공유는 이선미[52]의 연구를 토대로 총 8개의 문

향으로서 부부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고, 여행, 외식, 영화 등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정도를 포함한다. 고유치 4.329, 요인부하량 0.579~0.794로 측정변수의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부부관계 요인 중 여가공유에 관한 설명력이 총 변량의 14.927%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s α 는 0.891로 요인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경제적 갈등은 최정자(2010)의 연구를 근거로 총 5개의 문항으로서 상대방의 재정지출, 금전관리(신용카드 사용문제, 저축, 보험) 및 수입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나타내는 정도를 포함한다. 고유치 3.506, 요인부하량 0.656~0.831로 측정변수의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부부관계 요인 중 경제생활에 관한 설명력이 총 변량의 12.088%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s α 는 0.866으로 요인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친밀감은 Sternberg[53], 이경희[50], 이행욱[51]의 연구를 토대로 총 5개의 문항으로서 상대방에게 어려울 때 도와주며, 배려하고, 친하게 지내며,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정도를 포함한다. 고유치 3.222, 요인부하량 0.548~0.764로 측정변수의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부부관계 요인 중 친밀감에 관한 설명력이 총 변량의 11.109%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s α 는 0.865로 요인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의사소통은 황성용[54]의 연구를 토대로 총 5개의 문항으로서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며, 생각이나 의견을 잘 이해하고, 솔직한 대화 및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의하는 정도를 포함한다. 고유치 2.792, 요인부하량 0.596~0.701로 측정변수의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부부관계 요인 중 의사소통에 관한 설명력이 전체 총 변량의 9.630%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s α 는 0.790로 요인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결혼만족도는 오명재[44]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5문항으로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과 행복,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포함한다. 고유치 3.764, 요인부하량 0.830~0.890으로 측정변수의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총 변량 75.277%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s α 는 0.918로 요인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이혼의도는 이경미[49], 차성희[20]의 연구를 토대로 총 7문항으로서 배우자와 떨어져 지낸 적이 있거나,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적절한 기회가 되면 이혼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는 정도를 포함한다. 고유치 4.592, 요인부하량 0.589~0.854로 측정변수의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이혼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총 변량 38.265%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s α 는 0.906로 요인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4. 분석방법

설문지 답안을 엑셀에 코딩하여 SPSS 19.0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백분율 등의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통해서 산출하였다. 둘째,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부부관계 요인들을 위계적으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어떤 독립변인들이 영향력이 크고, 설명력이 높은지를 확인하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종교, 학력, 월평균수입 및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검정은 t 검정 및 일원배치분산 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관계의 요인인 애정생활, 여가공유, 경제적 갈등, 친밀감, 의사소통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하위범주 중, 성별($\beta=-.110$, $t=-2.236$, $p<.05$), 건강상태($\beta=.103$, $t=1.914$, $p<.05$), 월평균 수입($\beta=.139$, $t=2.582$, $p<.05$) 등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성이고, 건강상태가 좋고,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부부 간에 사이가 좋고, 결혼생활에 만족과 행복을 느끼

며,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혼만족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4.5%였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관계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월평균 수입($\beta = .112, t = 2.562, p < .05$)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관계 요인 중에서는 애정표현($\beta = .404, t = 11.059, p < .001$), 여가공유($\beta = .365, t = 10.178, p < .001$), 친밀감($\beta = .197, t = 5.218, p < .001$), 의사소통($\beta = .205, t = 5.680, p < .001$) 등이 결혼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갈등($\beta = -.139, t = -3.689, p < .001$)은 결혼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 중에서 애정생활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결혼만족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46.8%로 1단계보다 32.3%($\Delta R^2 = .323$) 증가하였다. 즉, 애정생활에 만족할수록, 함께 여가를 공유할수록, 친밀감이 높을수록,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금전 관리 및 수입이 충분하지 않는 등 경제적인 갈등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2. 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요인	하위요인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110	-2.236*	-.061	-1.552
	종교 ²⁾	-.047	-1.006	.032	.869
	경제상태	.120	1.914	.031	.645
	연령대	-.088	-1.763	-.021	-.512
	학력수준	-.017	-.323	-.063	-1.457
	직업 ³⁾	-.001	-.021	.054	1.385
	자녀동거여부 ⁴⁾	-.008	-.185	.008	.227
	건강상태	.103	1.914*	.038	.870
	월평균 수입	.139	2.582*	.112	2.562*
	집소유	-.070	-1.370	-.047	-1.132
부부관계	애정생활			.404	11.059***
	여가공유			.365	10.178***
	경제적 갈등			-.139	-3.689***
	친밀감			.197	5.218***
	의사소통			.205	5.680***
F		7.585***		25.949***	
R ² (adj. R ²)		.145(.126)		.468(.450)	
ΔR^2		.323			

* $p < .05$, *** $p < .001$.

1)성별(남=0, 여=1), 2)종교유무(있다=0, 없다=1), 3)직업유무(있다=0, 없다=1), 4)자녀동거여부(동거=0, 비동거=1).

2. 노년기 부부관계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부부관계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관계의 요인인 애정생활, 여가공유, 경제적 갈등, 친밀감, 의사소통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혼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하위범주 중에서 성별($\beta = -.078, t = -1.578, p < .001$), 경제상태($\beta = -.114, t = -1.998, p < .01$), 학력수준($\beta = -.220, t = -4.152, p < .001$) 등이 이혼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고, 경제상태가 나쁘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간에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이혼을 하고 싶다는 등 이혼의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혼의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13.9%였다.

표 3. 노년기 부부관계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요인	하위요인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078	-1.578***	-.052	-1.154
	종교 ²⁾	.010	.217	-.036	-.835
	경제상태	-.114	-1.998**	-.053	-.980
	연령대	-.059	-1.165	-.036	-.761
	학력수준	-.220	-4.152***	-.139	-2.825
	직업 ³⁾	.092	1.873	.085	1.892
	자녀동거여부 ⁴⁾	-.065	-1.440	-.068	-1.644
	건강상태	-.144	-2.653	-.073	-1.464
	월평균 수입	.080	1.487	.094	1.872
부부관계	집소유 상태	.025	.490	-.033	-.703
	애정생활			-.172	-4.089***
	여가공유			-.054	-1.311
	경제적 갈등			.347	8.028***
	친밀감			-.223	-5.157***
	의사소통			-.051	-1.222
F		7.250***		12.581***	
R ² (adj. R ²)		.139(.120)		.299(.275)	
ΔR^2		.160			

** $p < .01$, *** $p < .001$.

1)성별(남=0, 여=1), 2)종교유무(있다=0, 없다=1), 3)직업유무(있다=0, 없다=1), 4)자녀동거여부(동거=0, 비동거=1).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부관계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요인 중에서는 애정생활($\beta = -.172, t = -4.089, p < .001$), 친밀감(β

=-.224, t=8.028, p<.001)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갈등($\beta=.347, t=8.028, p<.001$)은 이혼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 중에서 경제적 갈등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혼의도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29.9%로 1단계보다 16.0%($\Delta R^2=.160$)증가하였다. 즉, 노후에도 애정 표현을 소홀히 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질수록 이혼의도가 높고, 금전관리 및 수입이 충분하지 않는 등 경제적인 갈등이 높은 노인일수록 이혼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의 차이

3.1 성별에 따른 변인별 차이

성별에 따른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혼의도를 제외한 요인들에서 여성보다 남성 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애정생활($t=1.994, p<.05$), 친밀감($t=2.317, p<.05$), 결혼만족도($t=2.623, p<.01$)에서 유의한 남·여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부부관계가 좋고 결혼만족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단 이혼의도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이었으나 집단의 차이는 없었다.

표 4. 성별에 따른 변인별 차이분석

성별		남자 (n=193)	여자 (n=266)	t
부부 관계	애정생활	2.75 ¹⁾	2.60	1.994*
		.772 ²⁾	.763	
	여가공유	2.96	2.86	1.423
		.714	.733	
	경제적 갈등	2.92	2.83	1.174
		.803	.827	
	친밀감	3.37	3.21	2.317*
		.700	.742	
	의사소통	3.24	3.16	1.249
		.654	.634	
결혼만족도		3.09	2.89	2.623**
		.821	.797	
이혼의도		2.71	2.83	-1.384
		.770	.883	

* $\alpha.05, **\alpha.01.$

1) 평균, 2) 표준편차

3.2 종교에 따른 변인별 차이

종교에 따른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종교가 있다는 집단에서 여가공유, 친밀감, 애정생활, 경제적 갈등,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다는 집단에서는 경제적 갈등과 이혼의도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가공유($t=4.080, p<.001$), 친밀감($t=3.957, p<.001$), 애정생활($t=3.908, p<.001$), 경제적 갈등($t=-3.540, p<.001$), 의사소통($t=3.415, p<.01$), 결혼만족도($t=2.987, p<.01$)에서 종교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에서 부부간 여가공유를 더 즐기고 있고, 친밀감이 높으며, 애정관계가 좋고,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고,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가 없는 집단에서는 경제적 갈등과 이혼의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혼의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종교에 따른 변인별 차이분석

종교		있다 (n=267)	없다 (n=192)	t
부부 관계	애정생활	2.781)	2.50	3.908***
		.7762)	.733	
	여가공유	3.03	2.75	4.080***
		.721	.705	
	경제적 갈등	2.76	3.03	-3.540***
		.773	.855	
	친밀감	3.40	3.13	3.957***
		.728	.701	
	의사소통	3.28	3.07	3.415**
		.636	.633	
결혼만족도		3.07	2.84	2.987**
		.795	.819	
이혼의도		2.67	2.92	-3.235
		.818	.846	

** $\alpha.01, ***\alpha.001.$

1)평균, 2)표준편차

3.3 학력에 따른 변인별 차이

학력에 따른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졸이상 집단에서 친밀감, 의사소통, 여가공유, 애정생활, 결혼만족도 등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졸이하 집단에서는 경제적 갈등과 이혼의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네 집단 간 평균차이에 대한 요인별 F 통계값을 살펴보면, 친밀감(F=19.425, p<.001), 의사소통(F=11.723, p<.001), 경제적 갈등(F=13.760, p<.001), 여가공유(F=9.729, p<.001), 애정생활(F=9.147, p<.001), 결혼만족도(F=15.025, p<.001), 이혼의도(F=22.352, p<.001)에서 학력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scheffé 방법으로 사후검정 한 결과, 애정생활과 여가공유에 있어서 초졸 이하의 집단보다 중졸, 고졸,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부부의 여가생활이 높고, 애정생활이 더 좋게 나타났다. 그리고 친밀감,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에서는 초졸 이하보다는 고졸이, 고졸보다는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부부 간 친밀도와 의사소통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갈등과 이혼의도에 있어서는 대졸이상보다는 고졸이, 고졸보다는 초졸이하의 집단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갈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혼의도는 대졸보다는 고졸이, 고졸보다는 중졸이, 중졸보다는 초졸이하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 학력에 따른 변인별 차이분석

학력		초졸 이하 (n=118)	중졸 (n=132)	고졸 (n=144)	대졸 이상 (n=65)	F
부부 관계	애정 생활	2.36 ¹⁾ b	2.75 a	2.75 a	2.87 a	9.147 ***
		.747 ²⁾	.712	.794	.728	
	여가 공유	2.64 b	2.92 a	2.99 a	3.19 a	9.729 ***
		.710	.632	.734	.778	
	경제적 갈등	3.15 a	2.96 ab	2.76 b	2.41 c	13.760 ***
		.836	.752	.811	.670	
	친밀감	2.98 c	3.22 bc	3.38 b	3.77 a	19.425 ***
		.713	.641	.722	.651	
	의사 소통	2.97 c	3.16 bc	3.25 b	3.52 a	11.723 ***
		.614	.577	.652	.649	
	결혼 만족도	2.65 c	3.96 b	3.04 b	3.45 a	15.025 ***
		.905	.710	.635	.855	
이혼의도	3.16 a	2.88 b	2.62 b	2.22 c	22.352 ***	
	.920	.782	.743	.842		

***p<.001.

1)평균, 2)표준편차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 간의 애정생활이 좋고, 여가생활을 함께 많이 즐기는 편이며,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하여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갈등 수준이 높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나 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4 건강상태에 따른 변인별 차이

건강상태에 따른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건강상태가 좋다는 집단에서 애정생활, 여가공유, 친밀감,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등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집단에서는 경제적 갈등과 이혼의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집단 간 평균차이에 대한 요인별 F 통계값을 살펴보면, 애정생활(F=26.782, p<.001), 친밀감(F=22.845, p<.001), 의사소통(F=21.050, p<.001), 여가공유(F=14.289, p<.001), 경제적 갈등(F=13.760, p<.001), 결혼만족도(F=33.971, p<.001), 이혼의도(F=37.218, p<.001) 등에서 건강상태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scheffé 방법으로 사후검정 한 결과, 애정생활, 여가공유, 친밀감, 의사소통에서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집단과 그저 그렇다는 집단보다 좋다는 집단에서 애정생활이 더 돈독하며, 부부여가공유가 더 높고, 친밀감이 더 높으며, 소통이 더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갈등에서는 건강상태가 좋다는 집단보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는 집단에서 가정경제의 문제와 갈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집단보다, 그저 그렇다는 집단이, 그저 그렇다는 집단보다 좋다는 집단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의도에 있어서는 건강상태가 좋다는 집단보다는 그저 그렇다는 집단이, 그저 그렇다는 집단보다는 나쁘다는 집단에서 황혼이혼에 대한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배우자와의 애정관계가 좋으며, 여가생활에 더 적극적이고,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갈등에 있어서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가정 내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년기 이후의 건강상태나 관리가 중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표 7. 건강상태에 따른 변인별 차이분석

건강 상태	나쁘다 (n=143)	그저그렇다 (n=192)	좋다 (n=97)	F	
부부 관계	애정 생활	2.45 ¹⁾ b	2.73 b	2.82 a	26.782***
		.792 ²⁾	.782	.632	
	여가 공유	2.74 b	2.81 b	3.16 a	14.289***
		.728	.696	.703	
	경제적 갈등	3.05 a	2.84 a	2.86 b	20.168***
		.963	.793	.677	
	친밀감	3.06 b	3.17 b	3.59 a	22.845***
		.781	.636	.704	
	의사 소통	3.02 b	3.09 b	3.46 a	21.050***
		.575	.633	.622	
	결혼만족도	2.62 c	2.87 b	3.37 a	33.971***
		.782	.777	.718	
이혼의도	3.18 a	2.87 b	2.36 c	37.218***	
	.891	.763	.708		

*** α .001.

1)평균, 2)표준편차

3.5 월평균수입에 따른 변인별 차이

월평균수입에 따른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월평균 수입이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애정생활, 여가공유, 친밀감,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등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100만 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경제적 갈등과 이혼의도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네 집단 간 평균차이에 대한 요인별 F 통계값을 살펴보면, 친밀감(F=19.488, p<.001), 경제적 갈등(F=6.222, p<.001), 의사소통(F=6.188, p<.001), 애정생활(F=6.026, p<.001), 여가공유(F=4.836, p<.01), 결혼만족도(F=14.702, p<.001), 이혼의도(t=5.426, p<.01) 등에서 월평균 수입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scheffé 방법으로 사후검정한 결과, 애정생활과 여가공유에서 월평균 수입이 100

만 원 미만 집단보다는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의 집단에서 부부의 애정생활이 더 원만하며,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생활이 더 높게 나타났다. 친밀감에 있어서는 100만 원 미만보다는 100-300만 원 미만, 100-300만 원 미만보다는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부부의 친밀한 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100만 원 미만보다는 500만 원 이상 집단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갈등은 500만 원 이상 집단보다는 100만 원 미만 집단, 100-300만 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집단에서 경제적인 갈등이 더 높게, 이혼의도에 있어서는 500만 원 이상 집단보다 100만원 미만 집단에서 황혼이혼에 대한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월평균 수입이 높은 집단일수록 애정이 돈독하며, 여가생활을 더 많이 즐기고, 친밀감과 의사소통도 높으며,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갈등, 이혼의도에서는 월평균수입이 낮은 집단에서 경제생활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후에도 안정된 수입원이 있어야함을 시사한다.

표 8. 건강상태에 따른 변인별 차이분석

(단위: 만 원)

월평균 수입	100미만 (n=143)	100-300 미만 (n=192)	300-500 미만 (n=97)	500이상 (n=51)	F	
부부 관계	애정 생활	2.45 ¹⁾ b	2.73 ab	2.82 a	2.77 a	6.026***
		.792 ²⁾	.782	.632	.795	
	여가 공유	2.75 b	2.91 ab	3.05 a	3.10 a	4.836**
		.716	.730	.624	.833	
	경제적 갈등	3.05 a	2.84 a	2.86 a	2.50 b	6.222***
		.963	.793	.677	.774	
	친밀감	2.97 c	3.32 b	3.48 ab	3.71 a	19.488***
		.742	.660	.615	.744	
	의사 소통	3.01 b	3.23 ab	3.32 a	3.33 a	6.188***
		.579	.655	.596	.752	
	결혼 만족도	2.67 c	2.98 bc	3.19 ab	3.40 a	14.702***
		.905	.710	.635	.855	
이혼의도	2.97 a	2.79 ab	2.64 ab	2.50 b	5.426**	
	.920	.782	.743	.842		

p<.01, *p<.001.

1)평균, 2)표준편차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남·여 유배우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요인과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 요인과 결혼만족도와 의 영향관계에서 애정표현, 여가공유, 친밀감 및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갈등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솔직한 애정표현과 성적인 만족이 높고 애정생활에 만족할수록,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생활이 많을수록, 친밀한 관계와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갈등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노년기 부부의 성관계나 애정이 강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약할수록 낮게 나타났다는 유시순[3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 친밀감이 좋을수록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이영옥[32]의 연구, 애정관계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던 조혜숙[1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노년기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여가활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상관관계와 영향을 미친다는 조혜숙[15], 권오균과 허준[13]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노년기 부부관계의 상호요인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할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는 오명자[44], 이영옥[32]의 연구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적 갈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최정자[38], Kinnunen[39]과 Kinnunen[40]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간 애정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여행이나 영화를 함께 보는 등 부부가 같이하는 여가생활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에게 배려하고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생각이나 의견을 잘 조율하며 가정 내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서로 상의하여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가정 내 경제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가정경제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수입의 안정성이 요구되고, 예산 내에서 절약하면서 사는 삶의 지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부관계와 이혼의도와 의 영향관계에서 경제적 갈등이 이혼생각에 정(+)의 영향을, 애정표현 및 친밀감이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부의 경제적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애정표현 및 친밀감이 낮을수록, 이혼생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후에도 애정표현을 소홀히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질수록 이혼의도가 높고, 금전관리 및 수입이 충분하지 않는 등 경제적인 갈등이 높은 노인일수록 이혼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의 갈등이 있을 경우는 이혼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갈등은 이혼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차성희[20]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집단의 특성(연령구분)과 지역과 시대의 차이가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만족이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성한기와 손영화[18]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간에 이혼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애정생활에 관심을 높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자의 금전관리와 재테크에 노력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경제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종교, 학력, 건강상태, 월평균수입에 따라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대한 차이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친밀감, 의사소통, 여가공유, 경제적 갈등 및 애정생활, 결혼만족도 등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밀감, 애정생활 등에서 유의한 남·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이 의사소통 효율성 정도와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던 박은아와 이정우[48], 권오균과 허준수[13]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부부간에 애정표현을 잘하고 있고, 부부의 여가활동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진 조혜숙[15]의 연구와도 일치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교의 유무에 따라 종교가 있다는 집단에서 여가공유, 친밀감, 애정생활, 경제적 갈등,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등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갈등, 이혼의도에 있어서는 종교가 없는 집단에

서 경제적인 문제를 더 소유하고 있고, 이혼에 대한 생각과 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결혼만족도에 종교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던 유시순[3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종교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던 권오균과 허준수[13]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기독교, 불교, 무교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력에 있어서는 애정생활, 여가공유, 친밀감,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등이 평균값이 높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경제적 갈등과 이혼의도 등에서 평균값이 높고, 집단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는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혼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던 김경미[49], 학력이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고, 의사소통이 높으며, 여가공유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혔던 조혜숙과 최수입[34], 조혜숙[15]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집단 집단에서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던 이명신[17]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좋다는 집단에서 애정생활, 여가공유, 친밀감,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집단에서 경제적 갈등과 이혼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권오균과 허준수[13],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애정관계 및 부부간 여가공유 및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던 조혜숙[15]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던 허준수[13], 윤영과 신효식[43]과도 일치하였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애정관계, 부부 여가공유 및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던 조혜숙[15]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였다. 월평균수입에 있어서도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애정생활, 여가공유, 친밀감, 의사소통,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낮은 집단에서 경제적 갈등과 이혼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입이 높을수록 이혼의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던 김경미[49]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반면에 월평균수입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던 권오균과 허준수[13]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모집단의 특성과 모집단의 사례수가 작아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밝혀진 결과들에서 노년기 여성배우자들의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를 낮추기 위한 남성배우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정부의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이용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노년기 부부들이 함께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안녕감과 부부의 관계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끝으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종합적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이혼의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 부부관계를 좋게 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부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노년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셋째, 노년기 은퇴 준비를 위한 경제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의 수립과 제도적 실천을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밝힌다. 첫째, 연구대상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에 편중되어 한계성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의 병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B. L. Neugarten and D. A. Neugarten, *Changing meaning of age in the aging society*, In A. Pifer & L. Bronte(Eds.), *Our aging society: Paradox and promise*, New York:

- Norton, 1986.
- [2] 정경희, 노년기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월호, pp.35-44, 2011.
- [3] 윤영, 노년기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4] B. Rollins and H. Feldman, "Marital satisfaction over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2, No.1, pp.20-28, 1970.
- [5] B. Rollins and K. L. Cannon, "Marital satisfaction over family life cycle: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6, No.2, pp.271-282, 1974.
- [6] 정옥분,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8.
- [7] 고지영, 장선녀, 2008 경기도가족여성통계, 정책보고서, 2009.
- [8] J. M. Gottman and R. W. Levenson, "A Two-factor model for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Exploratory analysis using 14-Year longitudinal data," *Family Process*, Vol.41, No.1, pp.83-96, 2002.
- [9] S. B. Silverberg and L. Steinberg, "Adolescent autonomy,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parental well-be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3, pp.293-312, 1987.
- [10] 김혜선,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울증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1권, 제2호, pp.343-364, 2007.
- [11] 김운정, 서선영, "중·노년기 부부 간 romantic relationship", *한국노년학회*, 제25권, 제1호, pp.87-102, 2005.
- [12] 박미석,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 여가선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12호, p.120, 2004.
- [13] 권오균, 허준수,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47권, pp.7-30, 2010.
- [14] 최현우, 노인 원가족 건강성, 부부친밀감, 고부갈등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5] 조혜숙, 중, 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역할,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16] H. A. Johnson, R. B. Zabriskie, and B. V. Hill, "The contribution of couple leisure involvement, leisure time, and leisure satisfaction to marital satisfac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Vol.40, No.1, pp.69-91, 2006.
- [17] 이명신, "여성의 잠재적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황과 복지*, 제8권, pp.207-266, 2006.
- [18] 성한기, 손영화, "기혼여성의 성가치관이 결혼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75-196, 2007.
- [19] 이경성,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제6권, 제2호, pp.97-119, 2001.
- [20] 차성희, 노년기 부부갈등이 이혼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21] 김경신, 이선미,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pp.31-54, 2001.
- [22] 김태현, 한희선, 노년기 부부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생활연구소, 제9권, pp.15-28, 1995.
- [23] S. B. Kincaid and R. A. Caldwell, "Marital separation: Causes, coping and consequenc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22, No.3-4, pp.109-128, 1995.
- [24] 홍숙자, 노년학개론, 하우:서울, 2007.
- [25] 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 [26] E. M. Brody, *Long-term care of older people: A practical guide*,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1977.
- [27] D. J. Levinson,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1978.
- [28] R. B. Tower and S. V. Kasl, "Depressive symptoms across older spouses: Longitudinal

- influences," *Psychology and aging*, Vol.11, No.4, pp.683-697, 1996.
- [29] A. J. Roach, L. P. Frazier and S. R. Bowden,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3, No.3, pp.537-546, 1981.
- [30] 정경희, 손창균, 박보미, *신 노년층의 특성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pp.51-52, 2010.
- [31] 유시순, "여성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6권, 제1호, pp.123-140, 2009.
- [32] 이영옥,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33] Chung, Kiseon, Y. Kamo, and J. Yi, "What makes husband and wif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s: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 *한국인구학*, pp.133-160, 2003.
- [34] 조혜숙, 최수일, "노년기 부부관계 변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제11권, 제11호, pp.313-328, 2011.
- [35] 김선우,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6] 김혜경,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부부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37] T. B. Holman and M. Jacquart, "Leisure-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A further tes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0, No.1, pp.69-77, 1988.
- [38] 최정자,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결대학교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9] U. Kinnunen and L. Pulkkinen, "Linking economic stress to marital quality among finnish marital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19, No.6, pp.705-724, 1998.
- [40] U. Kinnunen and T. Feldt, "Economic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Analysis at the dyadic leve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34, No.5, pp.519-532, 2004.
- [41] H. K. Kwon, M. A. Rueter, M. S. Lee, S. J. Koh, and S. W. Ok, "Marital Relationships the Korean economic crisis: Applying the family stress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5, No.2, pp.316-325, 2003.
- [42] 구분진, "중년 여성의 극복력, 희망, 부부친밀감 및 가족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제4호, pp.421-430, 2008.
- [43] 윤영, 신호식, "노년기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연구", *가정과학연구*, 제1권, pp.59-78, 1991.
- [44] 오명자, *은퇴한 노인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및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45] 김소진, "황혼이혼 여성노인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3호, pp.1087-1105, 2009.
- [46] 성영식, *황혼이혼의 원인과 대책*,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47]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48] 박은아, 이정우, "노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7권, 제2호, pp.25-44, 2003.
- [49] 김경미,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38, 2009.
- [50] 이경희, "부부간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권, 제4호, pp.235-249, 1995.
- [51] 이행옥, *노년기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정서적 상호작용·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52] 이선미,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53] R. J. Sternberg,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Vol.93, pp.119-135, 1986.

[54] 황성용,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여가활동 서비스의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저자 소개

김길현(Kil-Hyun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서울디지털대학교 (학사)
- 2010년 2월 : 호서대학교벤처전문대창업대학원(창업학 석사)
- 2012년 2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 박사과정

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복지, 교육학, 출판

하규수(Kyu-Soo Ha)

정회원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전문대학원 졸업(J.D.)
- 1999년 6월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LL.M.)
- 1998년 8월 : 미국 뉴욕주변호사 · 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창업, 벤처, 경영전략, 실버경영